

23만 관람객과 만들 게임열기... 지스타, 이젠 세계로!

2874 부스 기록 '역대 최대 규모' 메인스폰서도 외국 업체가 많아 현장 방문 안해도 트위터서 함께 '성덕' 찾는 채용박람회도 열려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8'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업체도 다수 참가해 게임 마니아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간 주춤했던 신작도 유명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도 대거 공개돼 박람회의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지스타 2018은 9월 기준, 2874부스를 기록해 지난해 최종 2857부스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지스타는 30개국 600여 업체가 참가해 덩치를 키웠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22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의 참가와 해외 기업의 참여로 관람객 2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스타의 공식 슬로건은 희망과 빛을 상징하는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은 'Let Games be Stars'이다. ◆메인 스폰서도 해외 업체...덩치 키우는 지스타

이번 지스타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을 필두로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게임사들의 하반기 시장 패권을



마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매년 역대급 라인업으로 지스타를 주도하는 넥슨은 올해도 최대 규모인 총 300부스를 마련했고, 모바일과 온라인을 포함한 총 14종의 게임을 선보인다.

넷마블 또한 지스타에서 조만간 출시되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 모바일 게임 4종을 공개해 인산인해가 될 전망이다.

해외 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꾀한다는 것이 이번 지스타의 특징이다. 특히 '포트나이트'로 흥행에 성공한 에픽게임즈가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나서 올해 처음 지스타에 참가한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외국 업체가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스타 조직위는

글로벌 인지도를 자랑하는 해외 기업의 메인 스폰서 참여를 통해 지스타가 국내 축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XD글로벌 등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여한다. 아울러 홍콩과 대만,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 국가들은 사절단 형태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는 게임이 대세?...올해도 e스포츠 '풍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스포츠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와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는 양축 모두 게임 시연을 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하는 첫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KT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현장에서는 한국 대표 선발전 불거리가 펼쳐진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스타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도 진행된다.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하는 트위치 코리아는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다. 이외에도 넥슨과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넥슨 스튜디오', 인기 BJ의 스페셜 매치를 연다.

◆'성덕' 되불까...채용 박람회 참여 활발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지스타의 게임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16일부터 17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8 게임기업 채용박람회'는 지스타의 부대 행사로 게임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게임기업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채용 박람회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했고, 게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가 참여하는 커리어 강연 프로그램인 '커리어 토크'도 열린다. 네오위즈,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액토즈소프트, 펄어비스 등 국내외 기업들의 참가가 확정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귀여운 고전게임부터 화려한 신작까지

넥슨과 함께해온 게임의 역사를 한눈에



총 330부스 규모로 '업계 최대'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협업 강화

올해로 14년째 지스타 출석 도장을 찍는 넥슨은 업계 최대 규모로 지스타 2018을 장식한다. BTC 300부스와 BTB 30부스, 총 330부스 규모다. 넥슨은 고유 지식재산권(IP) 모바일 게임 4종을 포함한 라인업 14종을 공개해 지스타를 신작 무대로 탈바꿈한다. 넥슨의 게임들과 앞으로 함께 할 넥슨의 새로운 게임이라는 의미를 담은 'Through Your Life'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넥슨은 14년 연속 참가의 노하우를 살려 최대한 많은 인원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연존 ▲이벤트존 ▲NEXON STUDIO(인플루언서 부스) 등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전면 개방 구조의 부스를 마련한다. 총 623대의 시연 기기를 마련했고,

게임에 집중하도록 '좌식 시연존'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연 방식을 시도한다. 시연존 뒤쪽 벽면에는 가로 50m, 세로 4m 크기의 '초대형 LED 영상면'을 도입했다.

부스 우측 앞쪽에는 '이벤트존'을 마련한다. '이벤트존'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아스텔리아'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어센던트 윈'의 SNS 이벤트, 플러스 친구 등록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넥슨이 내건 지스타의 슬로건은 'Through Your Life'로, 넥슨의 게임들과 앞으로 함께 할 넥슨의 새로운 게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같은 슬로건에 부합해 넥슨은 지스타에서 눈에 띄는 신작을 대거 들고 나왔다.

넥슨은 자사의 흥행 온라인게임을 모바일로 재탄생시킨다. '바람의 나라'와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일

즈위버', '마비노기'가 주인공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IP인 모바일 신작 '트라하'도 지스타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넥슨은 모바일게임과 함께 PC온라인 게임 신작도 지속적으로 개발, 서비스하며 탄탄한 라인업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넥슨 부스에서는 '프로젝트DH'로 알려졌던 액션RPG '드래곤하운드'를 최초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현재 열리역세스 중인 MOBA 장르의 '어센던트 윈'과 온라인 정통 MMORPG 신작 '아스텔리아'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지난해 출시한 '이블팩토리'와 '애프터 디 엔드'를 통해 특색 있는 개발팀으로 알려진 네오플의 '스튜디오포투(Studio42)'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 '데이프'와 '네 개의 탑'을 통해 넥슨의 신작 타이틀을 공개한다.

이외에도 넥슨은 TV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토대로 만든 '런닝맨 히어로즈', 일



넥슨 지스타 버티컬월. /넥슨

러스트레이터 정준호 아티렉터가 참여한 '윈: 더 라이트브링어', '스피릿위시'를 시연 출품하고, 가상현실(VR) 배경의 어반 판타지 2D 캐릭터 수집형 게임 '카운터사이드' 영상을 공개해 다양한 장르와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넥슨 부스 중앙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넥슨 스튜디오'가 마련된다. 15일 '트라하'

방송을 시작으로, 11종의 시연 출품작 방송이 이어진다. 대도서관, 도티, 테스터훈 등 유명 인플루언서의 전문적인 방송 콘텐츠로 현장을 찾지 못한 이용자도 지스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나인 기자



바람의 나라·크레이지 아케이드·테일즈 위버

런닝맨 히어로즈·아스텔리아·트라하